



#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(남덕유산)

보고 번호	(B0202010659)			상정(안)	봉황산		
지명 종류	산			심의종류	변경		
행정 구역	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9-1			좌 표	경도	127°40'46.36"	
					위도	35°46'3.11"	
지도 표기	남덕유산			지도출처			
관리 주체				관리명칭			
현 칭	순위	1순위	2순위	고시이력	고시일	2000-01.04	-
	한글	남덕유산	봉황산		한글	남덕유산	-
	한자	南德裕山	鳳凰山		한자	南德裕山	-
지명 유래	<p>○ 경상남도 거창군의 북상면 월성리,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,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(고도 : 1,507m). 남덕유산은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 남쪽에 위치한 덕유산 제2봉이다. 금강, 남강, 황강이 이 산에서 발원한다. 산에는 신라 헌강왕 때 심광대사가 창건한 영각사가 있다. 조선시대에는 봉황산(鳳凰山) 혹은 황봉(黃峯)이라고 하였다. 『여지도서(보유)』(안의)에 "황봉은 덕유산에서 남쪽으로 달려 나와 이 산봉우리를 이룬다. 관아의 서북쪽 65리에 있다."라고 하였다. 또한 『대동지지』(안의)에는 "봉황봉(鳳凰峯) 즉 덕유산 동쪽 지맥은 서북쪽 70리에 있다."라고 하였다. 『1872년지방지도』(안의)에 현의 북쪽에 황봉이 묘사되어 있으며 산에 영각사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. 이를 통해 고지도에서도 황봉·봉황산·봉황봉으로 지명을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지리산 다음으로 넉넉하고 덕이 있다고 하여 덕유산이라고 하고, 덕유산의 연봉들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하여 남덕유산이라고 하였다. [국토지리정보원, 한국지명유래집(경상편), 2011. 12.]</p>					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위 치 도</b></p>		
	<p>국토정보플랫폼 바로e맵</p>	<p>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(출처: 네이버지도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검토 의견</b></p>	<p>○ 문헌 조사를 통해 기록을 확인한 결과, 현재의 남덕유산은 산천총설과 산경표에 봉황봉(鳳凰峯)과 봉황산(鳳凰山)으로 기록되어 있으며, 조선후기 고지도 중 대동여지도에 덕유산과 더불어 봉황봉(鳳凰峯)이 구별되어 표기되었고, 1872년 지방지도(안의)에 덕유산의 연봉 중 하나로 황봉(黃峰)이 표기되어 있음. 조선지리지(장수)에서 봉황산(鳳凰山) 기록도 확인됨.</p> <p><b>【첨부 자료】</b></p> <p>○ 남덕유산은 '우리나라 100대 명산'에 속하는 산으로, 산이름 '봉황산'의 전통성과 역사성 회복 차원에서 지명 변경 필요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고려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제강점기에 처음 표기가 변화된 지명은 아니며, 조선지형도에는 덕유산(德裕山)으로 표기됨</li> <li>· 조선지리지(안의)에서 덕유산(德裕山) 기록도 확인됨</li> <li>· 봉황봉 외에 황봉(黃峰) 문헌 기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· 후부 요소 '산'과 '봉'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</li> </ul>	

【첨부 자료】 지리지 및 고문헌	상정(안)	봉황산
<p>○ 봉황산은 조선 전기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, 다만 조선 후기에 덕유산의 남쪽 지맥에 위치한 '鳳凰峯', '鳳凰山', 또는 '黃峯'으로 기록되어 있음</p> <p>○ 즉 『산천총설』(1770년)에 '鳳凰峯', 『산천총설』(1700년대 후반)에 '鳳凰山', 『여지도서(보유)』(안의)(18세기)에 '黃峯'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, 『대동지지』(안의)(1861~1866년)에 '鳳凰峯', 『1872년 지방지도』(안의)에 '黃峰' 등이 기재되어 있음</p> <p>○ 19세기 초반 기록으로 보이는 성해응(成海應, 1760~1839)의 『연경재전집(研經齋全集)』(권44, 地理類, 東水經)에는 “晉江源出茂朱德裕山之鳳皇峯”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남강의 옛 이름인 진강의 원류가 무주 덕유산의 한 봉우리인 '봉황봉'에서 발원했음을 제시하고 있음</p> <p>○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고문헌과 고지도 등에는 이 일대의 산지를 덕유산에서 뺀 후 나온 하나의 봉우리로 인식하면서 덕유산과 구별되는 '봉황봉.봉황산.황봉'으로 명명하여 인식했음을 알 수 있음</p> <p>○ 이러한 지명 인식은 일제강점기 초반 기록인 필사본 『조선지지자료』(장수군 수내면)에 '鳳凰山', 그리고 『조선지지자료』(안의군 서상면)에 '德裕山'으로 기록되면서 지역별로 봉황산과 함께 덕유산으로도 혼용됨</p> <p>○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《조선지형도》(장수)에 '德裕山'이 기재되면서 '봉황산'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이 일대 산지를 대표하는 '덕유산'이란 이름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임. 그 결과 '덕유산'이라는 대표 지명의 지명 영역이 확대, 강화되는 현상이 발견됨</p> <p>○ 급기야 2000년에 이르러서는 '봉황산'이라는 전통 지명은 소멸되고 대신, 이 일대의 유명한 산 이름인 '덕유산의 남쪽 지맥'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강조되고, 동시에 《조선지형도》(1914년) 이래 공식화된 명칭이었던 '덕유산'이란 이름에서 유래한 '남덕유산'이 고시(2000.01.14.)되어 표준화된 것으로 추정됨</p>		



